

『溫病條辨』에서 『臨證指南醫案』의 온병관련 의안을 변형하고 첨삭한 방법

김한성 · 임진석¹ · 이충열*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Quotations from the 『Linzheng zhinan yian』 in the 『Wenbing tiaobian』 : How were they transformed and corrected?

Han-sung Kim, Jin Seok Lim¹, Choong Yeol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1: Adjunct Professor,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The Wenbing tiaobian(溫病條辨) is the first systematic disease monograph on warm factor disease(溫病), written by Wu Jutong(吳鞠通). It was most influenced by the Linzheng zhinan yian(臨證指南醫案), which was a book of gathering medical case records of Ye tianshi(葉天士). Therefore, there are plenty of quotations from this book in the Wenbing tiaobia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otations from Linzheng zhinan yian, especially focusing on the way of transformation and correction of the original medical case records on the warm factor disea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About 104 of 265 provisions in the Wenbing tiaobian were directly quoted from the Linzheng zhinan yian. The provisions quoted from Ye's case records wer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triple burners pattern differentiation(三焦辨證) and the causes of warm factor disease. And every case record was transformed into more general descriptive form in order to put it into the book. For example, the specific figures, and some patients' peculiar symptoms, causes, sex and disease names were omitted. On the other hand, the tongue moss, pulse shape and some symptoms, which were necessary for differentiating patterns, were added. In the case of the formula, some formulas originated from Ye's case records were named newly. And the dose of each herb consisting a formula was determined, and therapeutic principle, taking method and detailed explanation was added to every formula.

Key words : Wenbing tiaobian(溫病條辨), Linzheng zhinan yian(臨證指南醫案), warm factor disease, Wu Jutong

서론

《溫病條辨》¹⁾은 吳鞠通²⁾이 溫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만든, 완벽하게 이론 체계를 갖춘 최초의 溫病 전문 서적이다.³⁾ 《條辨》이 나오면서 溫病學은 이론에서 임상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⁴⁾ 또 《條辨》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溫病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⁵⁾ 현재 중국에서는 《條辨》을 4대 의학경전(《內經》《傷寒論》《金匱要略》《條辨》) 중의 하나로 취급할 정도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⁶⁾ 《條辨》의 학술사상은 《內經》, 仲景의 《傷寒論》, 葉天士

의 《臨證指南醫案》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條辨》의 저술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葉氏로⁹⁾, 《條辨》은 완전히 葉氏의 理論을 근거로 하고 葉氏의 臨床經驗까지 採用하여 저술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⁰⁾

- 1) 이하 《條辨》으로 간칭한다.
- 2) 이하 吳氏로 간칭한다.
- 3) 李劉坤 강외 林錫錫 정리 《臨床溫病學特講》, 대성의학사, 2001년, p. 27
- 4) 앞의 책, p. 32
- 5) 앞의 책, p. 30
- 6) 吳氏 著, 丁彭炫 譯, 《國譯 溫病條辨》, 集文堂, 2004, p. 9
- 7) 이하 葉氏로 간칭한다.
- 8) 이하 《指南》으로 간칭한다.
- 9) 李劉坤·凌澤奎, 《論吳氏溫病學術思想淵源》, 新疆中醫藥 2000년 제 18권 제4기, p. 5
- 10) 朴贊國, 《溫病學 發達에 관한 文獻의 研究》, 서울, 慶熙大 學位論文, 1984, p. 32

* 교신저자 : 이충열,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산65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ylee@kyungwon.ac.kr, · Tel : 031-750-5419
· 접수 : 2005/05/30 · 수정 : 2005/07/06 · 채택 : 2005/08/01

溫病과 관련된 저서 중 吳氏가 가장 먼저 집한 책은 吳又可의 《溫疫論》이지만 이론은 거창하나 실제 치료면에 많은 취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葉氏의 《指南》을 연구하였다. 그는 葉氏가 溫病에 대하여 이론에서 치료까지 완벽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거의 葉氏 책에 몰두하여 이론적으로 溫病에 정통하였고, 특히 葉氏의 醫學을 거의 파악하였다.¹¹⁾ 이것은 《條辨》에도 잘 나타나 있다. 吳氏는 '王安道가 비로소 溫病을 傷寒으로부터 분리하여 辨證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論述이 상세하지 못하고 治法이 미비한 短點이 있다. 또 吳又可도 溫病만을 전문적으로 論述했지만 그 立論이 精密하지 못해 따를 수 없으며, 오직 葉氏만이 그 理論이 公平하고 立法이 精密하였다. 그러나 그 立論이 매우 簡略하고 溫病에 관한 그의 醫案들이 雜症門에 산재되어 있어,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¹²⁾, 그리하여 葉氏의 훌륭한 醫學 思想이 後人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葉氏 醫案 중 溫熱病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條辨》을 저술한다고 하였다.¹³⁾ 실제로 《條辨》의 많은 조문들은 葉氏의 《指南》에서 따 온 것이고, 《條辨》에 나오는 대부분의 처방 또한 葉氏에게서 비롯된 것이다.¹⁴⁾ 또한 의안을 직접 따오면서 그 안의 醫學思想들도 거의 다 그대로 계승하였다. 衛氣營血 辨證理論과 溫病이 手太陰肺에서 起始한다는 理論, 逆轉心包理論, 胃陰理論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吳氏가 확립한 三焦辨證理論과 《內經》에 立脚하여 處方을 구성하는 原則도 체계적이진 않지만 《指南》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指南》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고로 저자는 《條辨》의 조문들과 《指南》의 의안을 分析, 考察하여 《條辨》의 條文들이 《指南》의 醫案을 變形하고, 添削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條辨》의 條文과 處方의 原案과 醫學思想의 바탕을 찾는 것으로 《條辨》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作業이라고 생각된다.

본 론

본론에서는 먼저 《指南》에 대해 살펴본 후, 《條辨》의 조문이 《指南》의 의안을 어떻게 변형하고 침삭했는지 고찰해 보겠다.

1. 《指南》

葉氏는 평소애 진료에 바빠서 醫術은 精卓했으나 著述은 적다.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指南》10권이 있는데, 뒤에 <幼科新法>과 <溫證論治> 各一卷이 붙어있다. <幼科新法>은 葉氏가 손수 바로잡은 것이라 하는데, 후에 章楠이 表題를 고쳐 <三時伏氣外感篇>이라고 했다. <溫證論治>는 그의 門人 顧景文이 舟中에

서 葉氏의 口述을 받아 적은 것인데, 후에 章楠이 <外感溫熱篇>으로 名稱을 바꾸었다. 《許叔微本事方釋義》와 《景岳發揮》는 당시에 葉氏의 名聲이 높았으므로 後人이 假託한 것이다.¹⁵⁾

《指南》도 葉氏가 직접 著作한 책은 아니다. 葉氏一家 옆에 살았고 숙부부터 오랜 교제가 있어 醫術을 흠모하였던 李大瞻이 몇 년간 葉氏의 醫方과 醫案을 사서 採錄하여 책으로 만들어 보관해 놓았다. 이것을 華岫雲이 類型別로 分類, 校正, 編輯하고, 李治運(季序), 嵇璜(嵇序), 李大瞻(李序), 邵新甫(邵序), 高梅(高序), 華岫雲(華序)이 序文을 붙여 완성하였다.¹⁶⁾

또 《指南》 각 門의 끝에는 華岫雲(20篇), 邵新甫(20篇), 鄒滋九(10篇), 龔商年(6篇), 華玉堂(6篇), 鄒時乘(5篇), 桃亦陶(4篇), 秦天一(4篇), 陸履安(3篇), 華德元(3篇), 藏式玉(2篇), 鄒新甫(1篇), 華德之(1篇), 丁聖彥(1篇), 鄭望頤(1篇) 15명이 나누어 쓴 說明文을 한 篇씩 덧붙였다. 그러므로 《指南》은 華岫雲의 主導下에 이 20명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凡例에는 《指南》을 보는 법, 未備한 點, 當부하는 말 등이 적혀 있다. 醫案은 체록한 것으로 證候가 섞여 있어 分析하기가 어렵고 門을 나누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다, 本人이 醫學을 業으로 삼지 않았고, 나이도 70을 넘어 靈敏하지 못하므로 훌륭한 분들이 改正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¹⁷⁾ 또 醫案 中에 經過가 명확히 記載되지 않아 處方을 參考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藥의 分量, 炮製인지 丸인지 湯인지 혼잡하고, 服用量도 잘 나와 있지 않으므로 全的으로 보는 사람들이 뜻을 理解하라고 하였다.¹⁸⁾ 여기에서 《指南》의 不足한 點들을 알 수 있다. 즉 第三者가 醫案을 그대로 採錄하여 大략 門에 따라 分類하였으므로, 兼證이 많고 體系의이지 못하며 내용이 잡다하여 배우기 어렵다. 또 處方도 대부분 構成만 나와 있을 뿐 藥의 分量이나, 服用量, 製形 등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短點에도 불구하고 이 醫案들은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여기에는 溫病의 치료경험, 즉 辨證, 治療, 藥物 使用에 대한 실제적이고 전형적인 경험들이 大量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다.¹⁹⁾ 더구나 ச்ச의 立法方藥은 그 당시 葉氏와 사이가 안 좋았던 薛雪 마저도 칭찬할 만큼 정밀하고 정확하였다.²⁰⁾

吳氏는 이러한 《指南》의 醫案들 중 溫病과 관련된 것을 다시 分類 編輯하여 《條辨》 體系 內의 各 門에 넣고, 醫案을 다듬고 添削하여 條文體로 만들고, 處方의 이름과 用量, 服用法 등을 定하였다. 즉 《指南》의 短點을 모두 補完한 것이다.

그리하여 《條辨》은 理論에서 臨床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溫病에 관한 여러 理論과 《指南》의 醫案이 結合된 것이다. 이것은 《條辨》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오직 葉氏만은 그 理論이 公평하고 立論이 정밀하였다. 그러나 그가 吳人이어서 治驗이 대부분 南方의 病證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立論

11) 《臨床溫病學特講》, 앞의 책, p. 28-29

12)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48

13) 《條辨·上焦篇 35조》注: "惟葉氏心靈手巧, 精思過人, 案中治法, 絲絲入扣, 可謂匯衆善以爲長者, 惜時人不能知其一二; 然其法散見于案中, 章程未定, 淺學者讀之, 有望洋之嘆, 無怪乎後人之無階而升也. 故本論披拾其大概, 粗定規模, 俾學者有路可尋."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566

14) 앞의 책, p. 18

15) 李廣泳, 《葉桂의 溫病學 理論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 學位論文, 1995. p. 18-19

16) 姜桂星 具三俞 金在英 編譯, 《葉天士臨證指南醫案》, 圖書出版鼎談, 1998. p. 21-31

17) 앞의 책, p. 32

18) 앞의 책, p. 36

19) 《臨床溫病學特講》, 앞의 책, p. 26

20)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p. 314

도 매우 간략하다. 단지 溫病에 관한 그의 醫案들이 雜證門에 산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여겨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²¹⁾ 라고 하였다. 또 “이 책은 기본적인 것들을 가려 뽑아 대략 틀을 만들어 놓아서, 醫學을 배우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精妙한 것들이 매우 많지만 다 갖추어 기재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名家의 이론을 참고하고, 葉氏의 醫案을 상세하게 연구해야 深奧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葉氏의 醫案들은 《條辨》의 著述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또한 《條辨》으로 인하여 葉氏의 醫學思想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指南》의 醫案을 變形하고 添削한 여러 가지 방법

《條辨》은 모두 여섯 권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序文과 凡例, 經文19조의 原病篇, 本論에 해당하는 上焦, 中焦, 下焦의 三篇, 뒷부분의 雜說, 解產難, 解兒難으로 구성된다. 上, 中, 下焦의 三篇은 다시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 暑溫, 伏暑, 濕溫, 寒濕, 秋燥로 각각 病名으로 나누는데 上焦篇에는 溫瘧 하나가 더 들어간다. 총 265조 條文과 208개 處方으로 구성되며 각각 條文은 먼저 《傷寒論》의 저술 방식을 본뜬 간단명료한 條文式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吳氏 자신이 注를 달아 條文의 뜻을 명확히 하였다. 그 뒤에 處方과 服用法, 方解가 있으며, 대부분의 處方名 옆에는 內經의 어떤 法을 사용했는지 치료 원칙을 적어 놓았다.

《條辨》의 총 265조의 條文 중 약 104條 가량이 《指南》에서 직접 따온 것으로, 《指南》에는 溫病에 관한 醫案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吳氏는 이 중 虛勞, 咳嗽, 吐血, 積聚, 嘔吐, 便閉, 呃, 疸, 風溫, 溫熱, 暑, 濕, 燥, 癩痧疹瘰, 痰飲, 不寐, 癩, 痢, 便血, 癰, 瘰, 咽喉, 熱入血室 등에서 醫案을 따서 《條辨》에 실어 놓았다. 예를 들면 《條辨》 上焦篇 43, 44, 45, 49條, 中焦篇 44, 45, 46, 47, 48, 49, 50, 54, 55, 56, 58, 59, 60, 61, 62, 63, 65, 66, 67條, 下焦篇 43, 44, 45, 56條는 《指南》의 濕門에서 가져온 것이고, 《條辨》 上焦篇 50, 51, 52, 53條, 中焦篇 74, 76, 77, 78, 79, 80, 81, 82, 83, 85條, 下焦篇 58, 59, 60, 61, 62條는 《指南》의 瘧門에서 가져온 것이다.

溫病의 증상이나 溫病으로 인한 兼證이 나타나는 門들에서 醫案을 모두 가져 왔으며 특히 痢疾, 痢疾, 黃疸, 痺證, 熱入血室 등은 거의 《指南》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예를 들면 下焦篇27, 28, 29, 30條는 熱入血室의 증상인데, 《指南·熱入血室》門에 있는 네 개의 醫案을 모두 가져온 것이다.

또한 《條辨》에는 醫案 뿐만 아니라, 각 문의 뒤에 붙어 있는 說明文과 說明文에 나온 方劑를 그대로 따서 引用해 놓은 부분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中焦篇69條는 黃疸에 대한 총론인데 注에서의 설명이 《指南》 ‘疸’門의 蔣式玉의 설명문과 글자 몇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같다. 또 下焦篇30條의 注에도 《指南》 ‘熱入血室’門의 邵新甫의 설명문이 인용되어 있고, 下焦片77條의 處方은 《指南》 ‘痢’門의 邵新甫의 설명문에 나오는 桃頗眞의 處方이다. 이것은 吳氏가 葉氏 뿐만 아니라, 《指南》 자체, 즉 《指南》을 만든 사람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指南》의 의안을 《條辨》으로 옮겨오면서 變形하고 添削한 여러 가지 方法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指南》의 醫案을 재배열한 方法

먼저 《指南》 중 溫病과 관련된 醫案을 정리하여 三焦病位로 綱을 삼고, 溫病의 病因, 病機로 目을 삼아 《條辨》 內에 재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指南》 ‘燥’門의 ‘氣分熱’ 某案(桑杏湯), ‘肺胃津液虛’ 下案(沙參麥冬湯), ‘火鬱上焦’ 某案(翹荷湯)은 《條辨》 上焦篇 ‘秋燥’에 실려 있고, ‘燥’門의 ‘胃陰虛’ 陳案(玉竹麥冬湯)은 《條辨》 中焦篇 ‘秋燥’에 실려 있으며, ‘燥’門의 ‘熱劫陰液’ 某案(議以仲景復脈一法)은 《條辨》 下焦篇 ‘秋燥’에 실려 있다. 또 《指南》의 ‘濕’, ‘濕熱’, ‘痢’ 중 濕과 관련된 醫案은 각각 病位가 같지 않으므로 《條辨》 上, 中, 下 三焦의 각 편의 ‘濕溫’, ‘寒濕’ 중에 나누어 실려 있다.

2) 《條辨》에서의 三焦辨證과 衛氣營血辨證

三焦辨證은 《條辨》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吳氏는 溫病의 病機가 三焦를 따라서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溫病의 病邪가 口鼻를 통하여 침입하면, 鼻氣는 肺로 통하고 口氣는 胃로 통하므로 肺病이 逆傳되면 心包의 病이 되고, 上焦病을 치료하지 않으면 中焦의 脾胃로 傳하고, 中焦를 치료하지 않으면 下焦의 腎과 肝으로 傳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上焦病은 주로 肺와 心包經의 병으로, 中焦病은 주로 脾와 胃의 병으로, 下焦病은 주로 肝과 腎의 병으로 본 것이다.²³⁾

三焦辨證을 살펴보면 金元代 劉河間이 溫病을 三焦로서 定論하였고, 清代 喻嘉言은 溫疫之邪가 口鼻로부터 入하여 中道로 直行하여 三焦에 流布된다고 주장하고 治法에 있어 邪在上焦時에는 發散(升)시키고 邪在中焦時에는 和解(疎)시키고 邪在下焦時에는 下(決)시켜야 한다고 하여 溫病을 三焦로 辨證하여 치료했다. 이것이 三焦辨證의 맨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清代 薛雪이 溫病중 濕熱病에 관하여 經絡辨治와 三焦辨治할 것을 거론했지만, 辨證에 일정한 규율이 없고 臟腑辨證, 六經辨證, 衛氣營血辨證, 三焦經絡辨證 등 갖가지 辨證思想을 다 通用하였다.²⁴⁾

《指南》에서도 辨證은 衛氣營血辨證이 위주지만 三焦辨證도 사용하여, 三焦辨證과 三焦에 대한 언급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暑熱은 반드시 濕을 끼며, 吸氣하여 먼저 下焦를 상한다. 그러므로 仲景은 傷寒을 六經으로 먼저 구분하였고, 河間은 溫熱에 三焦를 구분하였다. …… 三焦의 氣分을 淸하게 하는 河間의 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²⁵⁾라고 하였고, “濕邪 瀰漫三焦”²⁶⁾란 말도 보이며, “선생의 뜻을 참고로 하면 劉河間의

21) 《條辨·凡例》: “惟葉氏持論平和, 立法精細, 然葉氏吳人, 所治多南方證, 又立論甚簡, 但有醫案散見於雜證之中, 人多忽之而不深究.” 《國譯溫病條辨》, 앞의 책, p. 531

22) 《條辨·上焦篇 35條》: “故本論摭拾其大概, 粗定規模, 俾學者有路可尋, 精妙甚多, 不及備錄, 學者仍當參考名家, 細繹葉案, 而後可以深造.” 《國譯溫病條辨》, 앞의 책, p. 566

23) 《溫病學 發達에 關한 文獻의 研究》, 앞의 책, p. 41-42

24) 崔三燮,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關한 研究》, 서울, 慶熙大 學位論文, 1987, p. 54

25) 《指南·暑》: “暑濕必挾濕, 吸氣而受, 先傷於上, 故仲景傷寒先分六經, 河間溫熱須究三焦”, 葉天士 編著, 徐靈胎 評審,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新文豐出版社公司印行, 1980, p. 344

26) 앞의 책, p. 358

三焦論을 따라 立法하였다. …… 下焦에 있는 것은 辛涼微苦로 하는데 예를 들면 竹葉, 連翹, 杏仁, 薄荷의 類이고, 中焦에 있는 것은 苦辛으로 선통하는데 예를 들면 半夏瀉心的 類이고, 下焦에 있는 것은 溫行寒性으로 質이 무거워 아래를 열어 주는 것, 예를 들면 桂苓甘露飲의 類이다. 이것이 모두 三焦를 治하는 大義이다.”²⁷⁾라고 하였다. 또 “단지 下焦 氣分을 傷한다…… 下焦에 있던 濕熱이 中下焦로 옮겨간다”²⁸⁾라고 한 부분이나 “三焦 中에서 어느 곳이 邪氣를 많이 받았는지 구분하고 아울러 病이 묶여 있는 곳을 구별하여 상세히 인식해야 한다. 下焦藥은 辛涼을 쓰고 中焦藥은 苦辛寒을 쓰며, 下焦藥은 鹹寒을 쓴다; 下焦藥은 氣味가 가벼워야 한다. 肺는 氣를 주하고 皮毛는 肺의 숨이 되므로 外邪는 마땅히 辛으로 다스리고 裏가 심하면 苦로 다스린다. 만약 煩渴하지 않고 病日이 오래 되면 邪氣가 鬱하여 不清한 것으로 淡滲으로 氣分을 洩한다; 中焦藥은 痧火가 가운데 있어 陽明이 燥해 지니 多氣多血하다. 藥의 氣味는 苦寒이 마땅하다. 만약 病이 오래 되어 胃津이 다 타버렸는데 苦를 쓰면 燥를 도와 胃津을 위협하니, 甘寒이 마땅하다; 下焦藥은 鹹苦를 위주로 하는데 만약 熱毒이 下注하여 痢가 되면 반드시 鹹으로 熨堅할 필요는 없고 단지 苦味만을 취하여 堅陰燥濕한다.”²⁹⁾라고 한 부분들은 《條辨》의 三焦辨證, 病邪의 進退, 三焦에 따른 用藥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條辨》에서도 三焦辨證을 하면서도 葉桂의 衛氣營血辨證法을 아울러 쓰고 있다. 즉 吳氏는 《條辨》에서 三焦辨證을 주요한 辨證體系로 내세웠지만 葉氏의 衛氣營血辨證과 仲景의 六經辨證까지 결합하였다. 三焦로는 上下를 나누고, 衛氣營血로는 表裏를 나누었고, 다시 六經으로는 臟腑經絡을 나누어 縱橫으로 交叉되는 立체적인 辨證體系를 수립한 것이다.³⁰⁾

三焦辨證과 衛氣營血辨證의 결합의 예를 들면 上焦 溫病 中에서 邪氣가 衛分에 있는 것은 桑菊飲證이고, 邪氣가 氣分에 있는 것은 白虎湯證이며, 營分에 있는 것은 清營湯證이고, 血分에 있는 것은 犀角地黃湯合銀翹散證이며 氣血兩燔한 것은 玉女煎去牛膝熟地加細生地元參方證이다. 또 中焦病 中에서 邪氣가 營分으로 들어간 것은 清營湯證이고, 下焦病 中에서 邪氣가 氣分에 있는 것은 宣清瀉濁湯證, 血分에 있는 것은 犀角地黃湯證이고, 氣血兩燔한 것은 竹葉玉女煎證이다.³¹⁾

여기서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을 綜合해 보면 兩者가 모두 溫病의 辨證手段으로서 三焦辨證은 臟腑에 基礎를 두었으며 衛氣營血辨證은 氣血에 核心을 두고 있다. 그러나 臟腑氣血의 病理變化와 病邪의 所在部位를 辨別하고 疾病의 輕重과 疾病의 轉

變規律 등을 밝힌 것이라는 點에서는 兩者가 크게 다르지 않다. 例로서 三焦辨證의 上焦는 心肺病證을 包括한 것으로 衛氣營血辨證의 衛分證에 相當하며 中焦脾胃의 病證은 氣分證에, 下焦 肝腎病證은 心包病을 包含하여 곧 血分證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三焦辨證은 衛氣營血辨證의 濕熱病辨證에 대한 不足한 點을 補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濕熱病의 邪氣가 衛分과 氣分之間에 留連하여 陰에 屬하는 濕熱病邪가 陽氣를 傷할 경우에는 衛氣營血辨證으로는 辨別하기 어렵고 三焦辨證을 適用시켜야만 쉽게 辨證할 수 있다. 그러나 三焦辨證도 결국 衛氣營血辨證의 規律를 벗어나지는 않는다.³²⁾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條辨》이 三焦辨證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에 《指南》의 三焦辨證思想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指南》의 醫案을 變形하고 添削한 방법

우선 대부분의 條文에서는 《指南》 醫案 中 要點이 되는 病名이나 病因, 病機를 條文의 맨 앞에 記載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³³⁾ 이러한 病名은 《條辨》에서 分類한 溫病의 하나로 규정할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指南》의 ‘暑邪’나 ‘暑熱’을 ‘暑溫’으로³⁴⁾, ‘寒熱’을 ‘濕溫’으로³⁵⁾, ‘濕’을 ‘寒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³⁶⁾. 또 이 때 臟腑의 경우에는 肺는 太陰³⁷⁾, 脾는 足太陰³⁸⁾, 胃는 陽明³⁹⁾ 등 經絡으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肺를 太陰으로 한 것만 빼면 《傷寒論》의 六經辨證과도 類似하다.⁴⁰⁾

醫案의 症狀는 要約하고 말을 다듬고 添削하여 條文으로 一般化하였는데, 날짜나 病日 등의 구체적 숫자는 大略的인 것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瘧邪와 熱氣가 內陷하여 痢를 양은 것이 삼 개월이다’⁴¹⁾에서 ‘瘧邪와 熱氣가 內陷하여 痢를 양은 것이 오랜 시일이다’⁴²⁾로 바꾸었고, ‘十三日不解’⁴³⁾에서 ‘十數日不解’⁴⁴⁾로, ‘十七日’⁴⁵⁾에서 ‘十餘日’⁴⁶⁾로, ‘一年有餘’⁴⁷⁾에서 ‘日久不已’⁴⁸⁾로 바꾸었다. 또 ‘右肢若廢’⁴⁹⁾를 ‘肢體若廢’⁵⁰⁾로 바꾸고, ‘左脇’⁵¹⁾을 ‘脇’⁵²⁾으로 바꾸고, ‘左脇按之痠痛’⁵³⁾을 ‘脇下成塊’⁵⁴⁾로 바꾸어 左

27) 《指南·濕》: “參先生用意, 宗劉河間三焦論立法, …… 于是在上者以辛涼微苦, 如竹葉, 連翹, 杏仁, 薄荷之類; 在中者以苦辛宣通, 如半夏瀉心之類; 在下者以溫行寒性, 質重開下, 如桂苓甘露飲之類, 此皆治三焦之大意也.”, 앞의 책, p. 362

28) 《指南·暑》: “但傷上焦氣分, …… 在上濕熱, 延及中下”, 앞의 책, p. 343

29) 《指南·痧疹》: “須分三焦受邪孰多, 或兼別病累猝, 須細體認. 上焦藥用辛涼, 中焦藥用苦辛寒, 下焦藥用鹹寒; 上焦藥, 氣味宜以輕, 肺主氣, 皮毛屬肺之合, 外邪宜辛勝, 裏甚宜苦勝, 若不煩渴, 病日多, 邪鬱不清, 可淡滲以洩氣分; 中焦藥, 痧火在中, 爲陽明燥化, 多氣多血, 用藥氣味, 苦寒爲宜, 若日多胃津消燄, 苦則助燥劫津甘寒宜用; 下焦藥, 鹹苦爲主, 若熱毒下注成痢, 不必鹹而熨堅, 但取苦味堅陰燥濕”, 앞의 책, p. 746

30) 《論吳氏溫病學術思想淵源》, 앞의 책, p. 5

31) 何徵, 《吳鞠通對葉天士在方劑學上的繼承與發揮》, 中醫藥學刊, 2003년 6월 제21卷 第6기, p. 944

32)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關한 研究》, 앞의 책, p. 55

33) 특히 上焦篇44, 56條, 中焦篇39, 44, 50條에서 잘 드러난다.

34) 上焦篇32條, 中焦篇41條

35) 上焦篇47條

36) 中焦篇44, 45, 49, 50, 67條

37) 上焦篇 6, 7, 46, 47, 54條, 中焦篇47, 79條

38) 中焦篇44, 45條

39) 中焦篇39, 49條

40) “辨證에 있어서도 上焦病에서 仲景의 太陽病을 太陰病(肺)이라 본 것 이외에는 陽明病(胃)을 中焦病으로 厥陰(肝), 少陰(腎)을 下焦病으로 보는 것은 仲景의 六經辨證과 그 基本思想이 一致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溫病學 發達에 關한 文獻的 研究》, 앞의 책, p. 42

41) 《指南·痢》: “瘧邪熱氣, 內陷變痢, 延已三月”,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497

42) 《條辨·中焦篇96條》: “瘧邪熱氣, 內陷變痢, 久延時日”,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36

43)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729

44)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51

45)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729

46)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52

47)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454

48)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73

49)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361

50)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22

51)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450

右가 들어간 病症에서 左, 右를 削除하였다.

患者의 個別的인 症狀, 病因, 平素體質 등은 削除하였다. 例를 들면 上焦篇49條에서는 《指南·濕》 王案의 ‘酒客少穀, 勞力所致’⁵²⁾를 削除하였고, 中焦篇48條에서는 《指南·濕》 方案의 ‘平昔嗜酒, 少穀中虛’⁵³⁾를 削除하였고, 中焦篇49條에서는 《指南·濕》 王案에서 ‘病中厚味無忌’⁵⁴⁾를 削除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患者의 個別的인 病因이다. 下焦篇43條에서는 《指南·濕》의 ‘從太谿穴水流如注’⁵⁵⁾를 削除했는데, 이것은 個別的인 症狀이다.

그리고 女子의 生理的인 症狀은 削除하여 性別을 없앴는데, 例를 들면 下焦篇44條에서는 《指南·濕》 龐案의 ‘中年未育子’⁵⁶⁾를 삭제하였고, 下焦篇73條에서는 《指南·痢》 某氏案의 ‘經期不來’⁵⁷⁾를 삭제하였고, 또 下焦篇27條에서는 《指南·濕》 沈氏案의 ‘前醫見咳嗽, 脈數, 舌白, 爲濕邪在肺, 用辛涼輕劑, 而煩渴愈甚’⁵⁸⁾를 削除하여 以前에 誤治한 經過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舌苔나 脈狀이 없는 경우는 添加하여 病狀을 더욱 잘 드러내었다. 例를 들면 上焦篇49條에는 《指南·濕》 王案에는 없는 ‘脈緩, 舌淡 或白滑不渴’을 添加하였고, 中焦篇39條에는 《指南·暑》 胡案에는 없는 ‘脈滑數’을 添加하였고, 中焦篇48條에는 《指南·濕》 方案에는 없는 ‘舌白滑, 甚則灰’의 寒濕의 舌苔를 添加하였다.

또 症狀를 좀 더 添加하여 자세히 說明하기도 하였는데, 例를 들면 上焦篇56條에는 《指南·燥》 卞案에 ‘或熱或咳者’를 添加하였고, 中焦篇39條에는 《指南·暑》 胡案에 ‘心下痞滿’을 첨가하여 痰濁의 症狀를 더 자세히 說明하였다. 또 中焦篇44條에서는 《指南·濕》 張案에 ‘不飢不食’의 症狀를 添加하였고, 中焦篇45條에는 《指南·濕》 周案에 ‘大便溏而不爽, 若欲滯下’의 大便症狀를 添加하였다. 또 下焦篇61條에는 《指南·瘧》 某案에 ‘形寒嗜臥, 舌淡脈微, 發時不渴’의 陽虛症狀를 더 넣었다.

醫案은 要點만 要約하여 條文을 만들었는데, 例를 들면 中焦篇56條는 《指南》 某案의 ‘吸受穢邪, 募原先病, 邪氣分布, 榮衛皆受, 上中下三焦交病’의 病機를 ‘吸受穢濕, 三焦分布’로 要約하였다. 또 下焦篇76條는 《指南·痢》 橋案을 要約하여 만들었다.⁶²⁾

또 上焦篇57條는 《指南·燥》 某案에서 따온 것인데, 某案의 ‘燥火上鬱, 衄脹咽痛’⁶³⁾을 ‘燥氣化火, 清竅不利’⁶⁴⁾로 바꾸어 耳鳴目赤의 증상까지 포함시켜 더 많은 증상들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症狀 중 몇 개만 뽑아서 範圍를 좁히기도 하였는데 例를 들면 上焦篇45條는 《指南·燥》 周案에서 따온 것으로, 《指南》의 頭脹, 耳聾, 咽喉症狀 中에서 咽喉의 症狀만으로 條文을 만들었다. 또 두 醫案을 합해서 한 條文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中焦篇50條는 《指南·濕》 膜案과 林案을 합해서 만든 것이다.⁶⁵⁾

이것은 모두 하나의 醫案을 條文의 形式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指南》의 醫案을 條文으로 만들었으므로 本人이 注를 다는 形式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4) 《指南》의 處方을 변형한 방법

處方은 “우선 그 處方이 그렇게 쓰이는 理由를 探究한 然後에 原方의 藥品과 分量을 늘리고 줄이면서 重用해야 할 때와 輕用해야 할 때, 多用해야 할 때와 少用해야 할 때를 하나씩 알아 나가면 자연히 정확한 기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⁶⁶⁾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吳氏가 《指南》의 處方을 그런 식으로 分析하고 立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指南》의 處方은 方名과 用量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方名을 붙이고, 用量을 定하고, 《內經》의 治療 原則과 服用法, 方解를 자세히 덧붙였다. 例를 들어 中焦篇42條는 《指南·暑》 張案⁶⁷⁾에서 따온 것인데, 《指南》에 處方의 本草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을 《條辨》에서는 “杏仁滑石湯方(苦辛寒法); 杏仁三錢 滑石三錢 黃芩二錢 橘紅一錢五分 黃連一錢 鬱金二錢 通草一錢 厚朴二錢 半夏三錢, 水八杯, 煮取三杯, 分三次服.”으로 바꾸고 뒤에 方解를 덧붙였다.

處方을 加減 없이 原方 그대로 쓴 경우도 많고⁶⁸⁾, 處方에 약간의 加減을 한 경우도 많다⁶⁹⁾. 處方의 뒤에는 따로 加減法을 덧붙이기도 했는데⁷⁰⁾ 例를 들면 中焦篇46條는 《指南·濕》 范案의 處方에 ‘陽素虛者 加附子三錢’을 덧붙였다. 또 處方의 一部를 加減法으로 돌려 各各의 症狀에 좀 더 맞도록 하였다.⁷¹⁾ 例를 들면 上焦篇56條는 《指南·燥》 卞案의 處方 中 地骨皮를 뒤

52)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71

53)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456

54)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71

55)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356

56) 앞의 책, p. 356

57) 앞의 책, p. 358

58) 앞의 책, p. 360

59) 앞의 책, p. 359

60) 앞의 책, p. 496

61) 앞의 책, p. 729

62) 《指南·痢》: “嬌 初起無寒熱. 卽瀉痢嘔惡不食. 乃噤口痢重病. 夫暑邪之傷 由口鼻吸氣而入. 邪與水穀交混. 蒸變濕熱. 體爲積滯膿血. 腸胃氣窒. 欲解不能通爽. 遂致裏結後重. 香連苦辛. 理氣導濕清熱. 初用頗是. 皆緣勞碌之人. 非育梁溫養之質. 淡薄積勞. 中氣易傷. 四十日來. 積少痛緩. 醫稱病 解. 而食不下咽 不知飢飽. 診得脈弦 形衰. 舌白不渴飲水. 日瀉數行. 全屬胃倒氣奪. 中宮損 極. 下關不攝. 穀不能咽. 焉能承受湯藥. 藥味氣劣 胃衰必惡. 久痢久瀉. 務在能食. 古人非醒 脾胃. 卽安腎攝納. 再詢粉漿下咽. 或噎或噎. 議以上脘宜通其清陽. 下焦當固攝其滑脫. 倣古方 中參蒼白朮散末. 當以米飲日服二次. 間以不膩滑之物. 食些少勿多. 以示胃之所喜爲補. 必得 ‘胃氣漸醒. 方有轉危爲安.’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499
《條辨·下焦篇76條》: “噤口痢. 嘔惡不飢. 積少痛緩. 形衰脈弦. 舌白不渴. 加味參苓白朮散主之”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79

63)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363

64)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575

65) 《條辨·中焦篇50條》: “寒濕傷脾胃兩陽. 寒熱. 不飢. 吞酸. 形寒. 或脘中痞悶. 或酒客濕聚. 苓薤朮桂湯主之.”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09
《指南·濕》: “莫. 五十. 今年夏四月. 寒熱不飢. 是時令潮疹氣蒸. 內應脾胃. 夫濕屬陰陽. 必傷陽氣. 吞酸形寒. 乏陽運行. 議鼓運轉旋脾胃一法.”
《指南·濕》: “林. 五二. 中年清陽日薄. 忽然脘中痞悶. 乃清陽不自轉旋. 酒肉濕濁之氣得以凝聚矣. 過飲滑瀉. 濕傷脾胃. 胃陽微. 仲景法. 以輕劑宣通其陽. 若投破氣開降. 最傷陽氣. 有格拒之害.” 《新校本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357

66) 《溫病條辨·中焦篇 76條》: “先務識其所以然之故. 而後增減古方之藥品分量. 宜重宜輕. 宜多宜寡. 自有準的”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27

67)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342

68) 上焦篇49, 50, 53, 56, 57條, 中焦篇39, 41, 42, 44, 45, 48, 49, 50, 54, 55, 56, 59, 60, 63, 64, 67, 70,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1條, 下焦篇15, 27, 28, 30, 36, 38, 43, 44, 45, 49,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3, 74, 75, 76條의 약 73處方이다.

69) 上焦篇6, 7, 30, 32, 43, 44, 45, 46, 47, 51, 52, 54條, 中焦篇46, 47, 58, 61, 62, 65, 66, 68, 69, 74, 85, 100條, 下焦篇1, 4, 29, 37, 39, 72, 77條의 약 31處方이다.

70) 上焦篇57條, 中焦篇46, 65條, 下焦篇39, 71條

71) 上焦篇56條, 中焦篇39條, 下焦篇36, 39條

로 빼서 '久熱久咳者 加地骨皮三錢'이라고 加減法에 넣었다. 또 두 醫案의 處方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淸營湯은 《指南·暑》 程案과 又案의 處方을 합한 것이다.⁷²⁾ 또 既存 處方에 《指南》 醫案의 處方을 합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淸絡飲加杏仁薏仁滑石湯方은 淸絡飲에 《指南·暑》의 王案 處方을 합한 것이다. 條文에 다른 症狀을 添加한 경우에는 藥物도 添加하여 條文의 症狀에 정확히 들어맞도록 했는데 上焦篇 57條의 경우 《指南·燥》 某案보다 耳, 目的 증상들이 더 添加되었으므로 處方에도 加減法을 덧붙였다.⁷³⁾

5) 《條辨》에서의 《內經》의 治療 原則

여기서 《內經》의 治療 原則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하겠다. 《條辨》의 대부분의 處方 옆에는 《內經》의 어떤 法을 사용하여 이 處方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立方 原則이 쓰여 있고 吳氏는 이 立方 原則에 의해 엄격히 處方을 만들고 加減하였다. 모든 處方은 아니지만 《指南》의 醫案에도 이러한 例들이 곳곳에 보인다. 예를 들면 '當辛涼淸上'⁷⁴⁾, '苦辛自能泄降'⁷⁵⁾, '苦辛寒主之'⁷⁶⁾, '甘寒淸熱 左而酸味'⁷⁷⁾ 등이다. 그러므로 《指南》의 이러한 句節들은 吳氏가 處方을 이런 式으로 分析하고, 立方, 加減하는데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6) 《指南》의 處方에 本草를 加減한 방법

處方 加減의 方法을 살펴보면, 上, 中, 下焦를 엄격히 區分하여 加減하였다. 예를 들어 上焦篇 52條를 보면 杏仁湯은 《指南·瘧》 金氏案과 張姬案에서 橘紅 菁蒿梗 白芍藥을 빼고 桑葉 茯苓 梨皮를 더했다. 注에서 "肺瘧은 瘧疾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병이지만 조금이라도 치료를 늦추면 병이 깊어지게 된다. 세속에서 瘧疾에 상응하는 小柴胡湯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데 肺는 少陽 半表半裏의 부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小柴胡湯을 써서 사기를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杏仁湯으로 肺氣를 가볍게 선동한 것이니, 사기가 결취되지 못하게 하면 낫는다."⁷⁸⁾라 하여 少陽 半表半裏로 들어가는 菁蒿梗⁷⁹⁾과 中下焦로 들어가는 白芍藥⁸⁰⁾을 뺐다. 또한 杏仁湯은 苦辛寒法이므로 溫性인 橘紅을 뺐다. 그리고 肺經으로 들어가는 桑葉과 茯苓 梨皮를 더했다. 즉 肺瘧은 上焦病이므로 立方시 中焦藥은 빼고 上焦藥을 넣은 것이다.

또 衛氣營血을 지켜 加減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中焦篇 66條의 薏苡竹葉散方은 《指南》보다 連翹 하나가 많은데 氣分의 濕熱을 淸解하는 의미⁸¹⁾로 添加한 것이다.

또 傷寒과 溫病을 정확히 區別하여 藥을 썼는데, 예를 들면 下焦篇 1條의 加減復脈湯은 復脈湯의 加減方으로 腹脈湯은 傷寒論의 炙甘草湯의 異名으로 傷寒으로 인한 結代脈을 치료한다. 따라서 《條辨》에서는 脈中の 陽氣를 보하는 人蔘, 桂枝, 生薑, 大棗를 빼고 三陰의 陰氣를 수렴하는 白芍을 가미하여 溫病傷陰을 치료한다고 하였다.⁸²⁾ 陽氣를 補하거나 溫熱한 약은 빼고, 陰氣를 補하거나 寒冷한 약을 첨가하는 것이 《條辨》에서 傷寒論 처방을 溫病에 적용하는 큰 대요이다.

그리고 한 處方이 《內經》의 어떤 法인지를 定하고, 그 法에 맞는 藥物들만을 선정하여 入方, 加減하였는데 예를 들면 桑菊飲은 《指南》 咳嗽門의 風溫 處方들을 加減하여 만든 것으로 辛甘化風藥에 辛涼微苦한 藥을 配合해서 만든 처방이다.

또한 비슷한 藥材일 경우 좀 더 그 症狀에 정확히 맞는 藥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上焦篇 44條의 淸宮湯去蓮心麥冬加銀花赤小豆皮方은 張姬案 처방에서 石菖蒲를 빼고 竹葉心을 넣었는데 竹葉心은 '심이 날카롭고 속이 비어있어 心竅를 소통하여 心火를 식힐 수 있다'⁸³⁾라고 하여 이 症狀에 더욱 들어맞게 加減한 것이다.

결론

本論에서 《指南》에 대해 살펴보고, 《條辨》의 條文이 《指南》의 醫案을 어떻게 變形하고 添削했는지 考察해 본 후 다음 같은 結論을 얻었다.

《指南》은 葉氏의 醫案을 李大瞻이 採錄하고, 華岫雲의 主導로 校正 分類 編輯해서 만든 것이다. 醫案을 그대로 採錄하여 대략 門에 따라 분류하였으므로 體系的이지 못하고, 兼證이 많고, 處方의 分量이나 服用量, 製形 등이 없는 여러 가지 短點들이 있으나, 여기에는 溫病의 治療경험, 즉 辨證, 治療, 藥物 使用에 대한 실제적이고 전형적인 經驗들이 大量으로 들어 있어 《條辨》의 著述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오씨는 이러한 《指南》의 短點들을 補完하여 《條辨》을 만들어 이론과 임상 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고, 《條辨》으로 인하여 葉氏의 醫學思想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條辨》의 총 265條의 條文 中 약 104條 가량이 《指南》에서 직접 따온 것으로, 溫病의 증상이나 溫病으로 인한 兼證이 나타나는 門에서 모두 醫案을 따왔다. 또한 醫案 뿐 아니라 각 門의 뒤에 붙어 있는 說明文과 說明文에 나온 方劑를 그대로 引用한 부분들로 보아 吳氏가 葉氏 뿐만 아니라, 《指南》 자체, 즉 《指南》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72) 程案 處方은 鮮生地 元參 川連 銀花 連翹 丹參이고, 又案의 處方은 竹葉 犀角 生地 麥冬 元參이다. 淸營湯은 犀角三錢 生地五錢 元參三錢 竹葉心一錢 麥冬三錢 丹參二錢 黃連一錢五分 銀花三錢 連翹(連心用)二錢이다.
73) 《溫病條辨·上焦篇57條》: "耳鳴者, 加羚羊角, 苦丁茶; 目赤者, 加鮮菊葉, 苦丁茶, 夏枯草; 咽痛者, 加牛蒡子, 黃",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575
74)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앞의 책, p. 363
75) 앞의 책, P. 338
76) 앞의 책, P. 309
77) 앞의 책, P. 439
78) 《溫病條辨·上焦篇52》注: "肺瘧, 瘧之至淺者. 肺瘧雖云易解, 稍緩則深. 最忌用治瘧印板俗例之小柴胡湯蓋肺去少陽半表半裏之界尚遠, 不得引邪深入也. 故以杏仁湯輕宣肺氣, 無使邪聚則愈."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573
79) '性은 寒 無毒하고, 味는 苦辛하다. 肝膽經으로 들어간다.' 全韓國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圖書出版永林社, 1995, p. 235
80) '性은 微寒 無毒하고, 味는 苦酸하다. 肝脾經으로 들어간다.' 앞의 책, p. 582

81) 《溫病條辨·中焦篇65》注: "連翹淸氣分之濕熱", 《國譯 溫病條辨》, 앞의 책, p. 621
82) 《溫病條辨·下焦篇1》注: "去參, 桂, 姜, 棗之補陽, 加白芍收三陰之陰", 앞의 책, p. 640
83) 《溫病條辨·上焦篇16條》淸宮湯 方論: "竹葉心銳而中空, 能通竅淸火", 앞의 책, p. 555

三焦辨證은 《條辨》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指南》에도 三焦辨證과 三焦에 대한 언급이 많으며 《條辨》의 三焦辨證, 病邪의 轉變, 三焦에 따른 用藥法과 類似한 부분이 있다. 또 《條辨》에서도 三焦辨證을 하면서 葉桂의 衛氣營血 辨證法을 아울러 쓰고 있으므로 吳氏가 三焦辨證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에 《指南》의 三焦辨證思想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吳氏는 《指南》中 溫病과 관련된 醫案을 정리하여 三焦病位로 綱을 삼고, 溫病의 病因, 病機로 目을 삼아 《條辨》內에 재배열하였고, 《指南》 醫案을 《條辨》의 條文으로 一般化하였다. 이를 위해 要點이 되는 病名이나 病因, 病機를 條文의 맨 앞에 記載하였고, 醫案을 要約하고 말을 다듬고 添削하였다. 구체적인 숫자나 患者의 個別的인 症狀, 病因, 平素 體質, 性別, 病名과 관계없는 症狀들은 削除하였고 舌苔나 脈狀, 자세한 症狀은 添加하였다. 醫案의 範圍를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였으며 두 醫案을 合하기도 하였다. 處方은 《指南》의 處方에 方名을 붙이고, 用量을 定하고, 《內經》의 治療 原則과 服用法, 方解를 자세히 덧붙였다. 處方을 加減없이 쓰거나, 處方에 약간 加減한 경우도 많으며, 뒤에 따로 加減法을 덧붙이거나 處方의 一部를 加減法으로 돌려 各各 症狀에 더 맞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 두 醫案의 處方을 合해서 하나를 만들기도 하고 既存 處方에 《指南》 醫案의 處方을 合하기도 하였다.

《條辨》의 대부분 處方 옆에는 《內經》에서 제시된 어떤 治法을 사용하여 이 處方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立方 原則이 나와 있고 吳氏는 이 立方 原則에 의해 處方을 만들고 加減하였다. 모든 處方은 아니지만 《指南》의 醫案에도 이러한 例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吳氏가 處方을 이런 式으로 分析하고, 立方,

加減하는데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處方 加減의 方法을 살펴보면, 上, 中, 下焦를 엄격히 구분하여 加減하였고, 衛氣營血을 지켜 加減하였다. 또 傷寒과 溫病을 정확히 구별하여 약을 썼으며, 처방이 《內經》의 어떤 法인지를 定하고, 그 法에 맞는 藥物들만을 選定하여 立方, 加減하였다.

참고문헌

1. 姜桂星 具三會 金在英 編譯. 葉天士臨證指南醫案. 圖書出版鼎談. 1998.
2. 葉天士 編著, 徐靈胎 評審. 新校本 臨證指南醫案.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0.
3. 吳氏 著, 丁彭炫 譯. 國譯 溫病條辨. 集文堂. 2004.
4. 李劉坤 강의, 林鎮錫 정리. 臨床溫病學特講. 대성의학사. 2001.
5.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圖書出版永林社. 1995.
6.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7. 朴贊國. 溫病學 發達에 關한 文獻的 研究. 서울, 慶熙大學位論文. 1984.
8. 李廣泳. 葉桂의 溫病學 理論에 關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位論文. 1995.
9. 崔三燮.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關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位論文. 1987.
10. 李劉坤, 凌澤奎. 論吳氏溫病學術思想淵源. 新疆中醫藥 第18권 제4기, 2000.
11. 何徵. 吳鞠通對葉天士在方劑學上的繼承與發揮. 中醫藥學刊. 第21권 제6기, 2003.